

광주미래산업엑스포 성료...전문테크산업전 '도약'

수출계약 786만달러 등 큰 성과
그린카·뿌리산업 등 전시회 통합
현대차 등 256곳 참가 호남 최대
“광주 미래 신산업 준비 등 만전”

광주대표산업인 미래차, 드론·뿌리, 가전·로봇산업 등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 광주미래

산업엑스포'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해 지난달 27~29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그룹·삼성전자·지역 기업 등 256개 기업·기관이 557개 부스를 운영,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엑스포는 미래차, 드론·뿌리, 가전·로봇 등 미래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호남 최대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일반적인 수준의 전시회를 뛰어넘어 '전문 테크(Tech) 산업전'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출 상담 168건 1571만 달러, 수출계약 786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조와 물류, 교통,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마음껏 뽐냈다. 자동주차와 안전순찰 로봇, 친환경차량, 드론 시뮬레이

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부스는 연일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혁신제품을 전시하고 기술을 시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올해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 등 3개 전시회를 통합하고, 새롭게 '광주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

사회'를 추가 확대해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엑스포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뿌리, 가전·로봇산업 등 광주 경제그릇을 키워온 미래 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다가오는 모빌리티 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 미래 신산업을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출범

45개 초교서 227명 선발

“학교 앞 안전, 우리가 지켜요.”

전남도가 3일 도청 왕인실에서 학교 주변 안전 신고 활동을 위한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출범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초등학생 스스로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문화 활동이다.

앞서 전남도는 초등 고학년층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총 45개 초등학교에서 227명의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선발했다.

위촉 기간 2년 동안 친구들의 안전을 지

켜주는 든든한 영웅, 용감한 안전 지킴이로 다양한 안전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 안전 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명장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안전 실천 선서 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명 부지사는 "어린이 관점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며 "전남도 또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북구,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광주지역에 많은 강수량이 예고된 가운데 3일 북구청 하천방재과 직원들이 북구청사에서 스마트 침수 대응 CCTV로 지하차도 및 하천 범람 지역 등 침수 취약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재공모

15일까지 원서 접수...8월 발표

전남도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재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응모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총감독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전남도 문화재단,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전시계획서 등 준비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1차 면접과 최종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

장은 "수묵비엔날레는 수묵이라는 특수성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의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현대미술 축제이자 미학적 사유의 장"이라며 "4회째인 2025 수묵비엔날레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성숙하는 공동 경험의 장이 되고자 총감독 선임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수묵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국제레지던시 등 다양한 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 29개 기관·단체, '대표 청렴도시 도약' 다짐

'2024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광주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에 청렴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공동이행과제와 기관별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9년 4월 발족한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 광주지역 29개 기관·단체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시민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공부문과 전지연 민간부문 의장 등 24개 기관·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여했다. 또 광주연구와 프로팀과 함께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청렴실천을 유도하는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청렴도시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해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도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광주FC와 함께하는 광주 청렴데이 행사 개최'를 공동이행과제로 선정, 오는 8월25일 광주FC 홈경기에서 청렴홍보 캠페인, 공동관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주 북구의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광주'의

염원을 담은 손팻말 퍼포먼스를 통해 공정과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청렴과 공정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1급수에도 열목어, 산천어, 버들치 등의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광주가 맑은 물이 되어 열목어가 사는 세상이 되도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지속가능 ESG 혁신경영 성과

광주도시공사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1차 사후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ISO-37001은 조직 내 부패 관련 시스템의 계획 수립, 실행, 유지, 개선과 관련해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국제적 표준규격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020년 최초로 인증 획득한 이후, 이번 1차 사후 인증 자격 획득을 통해 5년 연속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패리스크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추진 결

과에 대한 내부 심사와 경영검토' 등 절차 이행 확인을 통해 조직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적합성 여부를 심사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청렴의 내재화로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는 K-CP(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부서장 성과계약 반영, 상임감사제 도입 및 감사실 인력 증원 등 청렴윤리경영을 강화했다.

다음 달에는 임직원에게 반부패 관련 법률과 제도를 이해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청렴골든벨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연탄사용 취약계층 연탄값 추가 지원

광주시는 3일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생산공장이었던 남산연탄이 지난 4월 폐업하면서 장거리 연탄수급으로 연탄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연탄사용 취약계층에게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연탄사용 취약계층(연탄바우처)은 712가구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가구당 최대 54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는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46가구에 대해 가구당 1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 전주·경주 등 타지역에서 연탄을 수급하는 만큼 물류비용의 추가 발생에 따른 연탄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9~10월 중 연탄사용 취약계층 전체 가구에 3만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타지역에서 연탄을 수급

할 경우 판매가격이 인상돼 연탄사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남산연탄의 이전 및 적치장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연탄 사용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